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이 당신의 가나안이다. 가나안은 먹고 살기 힘든 곳이다. 주기적으로 흉년도 찾아온다. 아브라함-이삭-야곱 삼 대 모두가 흉년으로 인한 기근을 겪었다. 신앙적으로도 황폐한 곳이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그 사람들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을 받을 것이 확실한 곳. 그런 곳이 가나안이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 창세기 26:1**

이삭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거처를 옮기다가 그랄에 이르렀다. 그랄은 가나안의 남쪽 경계다. 더는 내려갈 곳이 없다. 지난 흉년에는 아브라함이 식량을 찾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었고 사라를 누이라 말했다가 바로의 궁정에 보낸 일이 있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다. 가지마라. 여기 있어라.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 창세기 26:2**

당장 먹을 양식이 떨어지거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명령하신다. 그렇다고 다음 날 일어나보니 텐트 앞에 쌀 자루가 쌓여 있는 것도 아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것은 당장 먹을 양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재확인이었다.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 창세기 26:3-4**

이삭은 순종했다. 떨어지가는 양식을 보면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것과 동일한 말씀을 따라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렇다고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양식이 바닥을 보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 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우므로 그 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 창세기 26:7**

아브라함도 두 번이나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 죽을까봐 그랬다. 이삭도 같은 이유로 리브가를 누이라 했다(실제로 이삭과 리브가는 오촌 사이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손가락질 생각해서는 안된다. 가나안의 윤리가 아브라함 때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는 것이다.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남편을 죽이고 강제로 끌고가면 그만인 동네가 바로 가나안인 것이다. 이런 곳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신다. 양식이 생기지도, 위협이 사라지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말라 하신다. 그래서 이삭은 거기 머물렀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나 당장의 환경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럴 때 현실이나 말씀이나,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당신이 사는 가나안은 어떠한가.